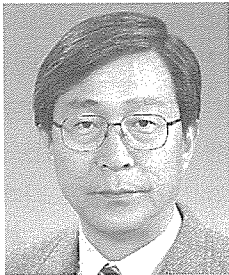


월드컵과 히딩크, 그리고 우리의 과학기술 기초체력

“우수인력 확보 연구 뒷받침해야”

우수한 두뇌가 과학기술 분야로 몰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환경, 연구에 대한 충분한 투자
 그리고 연구를 효율적으로 조직·지원·평가하는 과학기술 행정이 갖춰져야
 비로소 강한 기초체력을 지닌 과학기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李昌馥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서울대 해양연구소장)

지난 6월 2002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하였다. 최소한 본선 1승과 16강 진출을 목표로 했던 우리는 애초의 목표를 넘어 8강, 그리고 4강까지 진출함으로써 스스로도 놀랄 만큼의 성과를 이루었다. 이 과정에서 ‘붉은 악마’를 주축으로 한 거국적 응원의 열기를 통해 민족 단합의 새로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히딩크감독이 보여준 것과 같은 지도력이 끌어올 때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히딩크감독이 이끌어낸 월드컵의 놀랄만한 결과의 원인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학연과 지연에 얽매이지

않은 선수의 등용, 축구협회나 언론 등의 외압으로부터 전혀 영향받지 않고 초지일관 원칙과 신념대로 밀어붙인 뜻심, 상대방의 전력과 우리팀의 장단점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입각한 작전 수립 등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경영자적 자질은 아마도 앞으로 우리가 참고해야 할 중요한 덕목임에 틀림없고, 아울러 선수들이 보여준 강한 투지와 열정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커다란 자산일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히딩크감독이 지적했던 기초체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리라 생각된다. 히딩크는 불과 서너달의 고된 훈련으로 우리 선수들의 체력을 상당한 수준까지 올려놓을 수 있었고, 그 토대 위에서 우리는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 세계 최강의 팀들과 싸워 이길 수 있었다. 그럼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기초체력은 과연 어떠한 수준인가? 아니, 그보다 먼저 우리는 과학기술에 있어 기초체력은 과연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그것이 단기간의 집중훈련을 통해 갖출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연구인력 양성 문제점 심각

한 나라 과학기술의 기초체력을 형성하는 두개의 축은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인력의 우수성과 이들의 자유로운 과학적 사고가 창의적 연구로 실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반 물적, 제도적 환경의 효율성이다. 즉, 우수한 두뇌가 과학기술 분야로 몰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환경, 연구에 대한 충분한 투자, 그리고 연구를 효율적으로 조직·지원·평가하는 과학기술 행정이 갖춰져야 비로소 강한 기초체력을 지닌 과학기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 4가지 모두에서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연구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당면한 문제점은 매우 심각하다. 과학기술자들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적, 경제적 신분으로 인하여 우수한 두뇌들이 이공계 대학 진학을 기피하는 현상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심지어는 많은 과학기술 분야 대학생들마저 고시열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노력에 비해 보상이 적은 과학기술 분야를 버리고 보다 안정된 신분과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조계나 의료계를 지향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한편, 60년대부터 8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의 긴 민주화운동과 그에 뒤이은 노동운동, 통일운동 등 각종 ‘운동’의 성지로 작용하면서 그 동안 한번도 학문이 그 존재가치의 중심적 위치를 누려본 적이 없었던 대학은 이제 다시 벤처와 SCI논문으로 대변되는 성과제일주의, 그리고 과도한 평등주의로 방향을 잃고

있다. 학문연구와 인력양성의 중심점이 되어야 할 대학이 그 본래의 기능을 아직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기술을 떠받치는 두개의 축 중에서 연구인력의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는 거의 와해 직전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 2002년도 정부 예산에서 R&D 예산은 전체 예산액의 4.7%에 이르는 5조원 규모로서, 불과 5천억원을 약간 상회했던 1990년과 비교할 때 12년 동안에 약 10배로 증가한 것이다. 한편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보고한 2001년도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 수준은 세계 21위로서 세계 8위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한마디로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며, 그 원인의 일부는 아마도 정부 부처간 조정과 협력의 미비로 인한 중복투자와 과잉투자 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를 보따리 장사꾼 취급

그러나 동시에 정부의 잘못된 과학기술 행정과 허술한 연구관리 체제로 인한 비효율 요인도 결코 무시하지 못하리라 생각된다. 특히 국가의 정책적 연구과제들을 장기적 계획 하에서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정부출연연구소를 연구용역기관으로 취급하여 PBS제도로 운영하는 방식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본래의 취지는 어떠한지 모르겠으나, 이 제도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필요한 공공적 성격의 연구와 민간을 대상으로 한 용역연구가

혼동됨으로써 연구소의 역할과 존재 이유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아울러 연구자들을 말하자면 '연구과제 보따리 장사꾼' 처럼 만들어 그들의 연구자로서의 자존심과 함께 전문성과 창의성마저도 크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연구과제의 선정과 평가에 있어서도 비록 요즘 들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남은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 특히 선정된 연구과제가 너무 수단적 연구에 치중되어 있고, 아울러 연구관리가 너무 도식화된 까닭에 연구자가 단순한 도구로 전락하는 문제는 매우 우려된다. 연구를 전반적으로 타성화시켜 창의적 연구를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 위험이 큰 까닭이다. 연구의 창의성을 복돋우기 위해서는 과제의 선정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하되 일단 지원이 결정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연구자의 자율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어야 하며, 대신 결과의 평가를 엄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결과의 평가는 요즘처럼 영수증을 제대로 챙겼는가에 치중하여 모든 연구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기보다는 오히려 애초의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노력을 하였는가의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단기처방으로 해결안돼

이렇게 따져보니 우리가 튼튼한 과학기술의 기초체력을 갖추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어려운 문제점이 너무나도 많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나라가 국제적 경쟁에서 앞서기는 선진

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강한 기초체력을 갖추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집중해야만 하리라. 그러나 과학기술의 기초체력은 한, 두사람의 탁월한 지도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외국에서 수입된 제도나 인력에 의존할 수 있는 성격의 것도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설정한 국가적 목표에 모두의 힘을 결집시키고, 오래 인내하면서, 하나 하나의 문제점들을 차분하게 풀어나갈 때만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 과제인 까닭이다. 그것이 축구와 과학기술의 다른 점이다. 히딩크는 일년반만에 우리 축구를 세계 정상급의 반열에 오르게 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선진화는 그렇게 단시일 내에, 집중적 투자와 지원만으로 이룰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정책 당국이, 혹시라도 월드컵 성공에 고무된 끝에, 우리의 과학기술 문제를 '고액과외' 식 단기처방으로 해결하려는 유혹에 사로잡힐까 조금은 우려되는 마음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그러면 지난 6월 한달 동안 이 땅을 휩쓴 히딩크 열기는 우리 과학기술을 위해서 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해가 될 것인가. 지난 6월 4일 폴란드와의 첫 대전을 우리 집에서 함께 보며 응원했던 한 친구의 농담이 생각한다. 평상시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고액 과외는 전혀 불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히딩크 때문에 집안에서 자신의 입지가 많이 약화되었다고 말하던. 바라건대 제발 우리나라 정책 담당자들이 과학기술과 축구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기를... ㉞